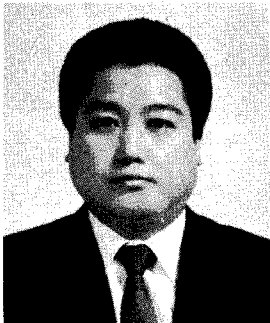


# 축산정책의 개선방향



류 제 창

건국대 축산대교수, 경제학박사  
한국축산경영학회 회장

소 두수의 증가로 쇠고기 자급률이 점점 올라가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였는데 모처럼의 한우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실책이 나올까봐 심히 걱정스럽다.

이러한 어려운 때 일수록 축산인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지금까지 손해본 농민의 소사육 보상을 해 줄수 있지 않겠는가?

다행하게도 7월 15일을 기점으로 한우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므로 소 키우는 농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구매력의 제약 때문에 소의 적정가격 수준까지 올라가자면 상당 기간이 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오르는 소값의 여세를 이용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소 자금」을 마련하여 생산비 수준에서 400kg 이상의 비육우를 구입 도살 가공한다면 소값의 조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쇠고기와 한우 뿐만 아니라 젓소와 우유도 '80년 이후 크나큰 시련을 당하고 있다.

## 3. 젓소와 우유의 시련

〈표 6〉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낙농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62년도부터 본격적인 낙농진흥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초년도인 '62년도에 젓소 2,406두 었던 것이 정부·낙농가의 노력으로 '67년도에 1만두 고개를 넘었고, 10년이 지나 '77년도에 10만두 큰 고개를 넘었으며 대망의 '80년대의 초년도인 '80년도에 20만두의 둘째 큰 고개를 넘었으나 '80년도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기 〈一〉로 떨어진 불행한 시대로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은(약 3) 우유는 어김없이 소비의 둔화로 우유의 체화현상을 가져와 크나큰 우유의 시련을 받게 되었다.

송아지 한 마리에 15만원, 어미소가 1백만원이란 가격의 하락은 젓소의 방매사태를 몰고와서 '81년도에는 80년보다 떨어진 194천두로서, 소두수의 후퇴를 맞보게 되었다.

다시 그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두수의 증가로 '84년도말 334,352두란 30만두 셋째 큰고개를 올라가면서 한우의 과잉 합병증에 걸리고 말았다.'80년도에는 다행히도 고기소값이 비교적 좋았었기 때문에 유량이 적은 즉 적정소득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수준에 미달하는 유량 보유젓소는 과감히 도태하여 절대두수의 감소에 의한 우유체화를 막았고 동시에 학교의 우유급식확대 등의 대책으로 시련을 극복하였던 기억이 난다.

〈표 6〉 년도별 젖소사육현황과 우유생산 및 소비량

연도	젖 소				우 유			총인구	인구 1인당		
	사 육		착 유		산유량	납유량	총소비량		소득액	우유소비량(년)	우유1일 소비량
	호 수	두 수	두 수	호 당 평균							
'62	호 676	두 2,406	두 802	3.6	M/T 2,647	M/T 1,520	M/T 2,647	천명 26,513	\$ 96	gr 100	gr 0.3
'63	813	3,538	1,327	4.4	4,512	3,190	4,512	27,262	102	166	0.5
'64	1,087	5,199	2,073	4.8	7,130	5,314	6,988	27,984	107	250	0.7
'65	1,210	6,612	2,968	5.5	1,0685	8,851	10,474	28,705	114	365	1.0
'66	1,478	8,471	3,946	5.7	14,600	12,661	13,914	29,436	131	473	1.3
'67	1,818	10,360	4,958	5.7	19,188	17,321	18,762	30,131	143	623	1.7
'68	2,145	13,760	6,090	6.4	24,360	22,148	24,034	30,838	165	779	2.1
'69	2,322	18,820	8,650	8.1	35,470	32,439	35,037	31,554	198	1,110	3.0
'70	3,126	23,624	12,067	7.6	51,888	47,706	49,688	32,241	223	1,541	4.2
'71	3,270	30,009	14,202	9.2	65,307	62,064	62,184	32,883	252	1,891	5.2
'72	3,788	36,128	17,745	9.5	79,852	77,115	79,852	33,505	303	2,383	6.5
'73	5,488	52,424	22,976	9.6	104,082	101,819	104,082	34,103	363	3,052	8.4
'74	7,348	73,195	30,016	9.9	126,901	124,745	126,901	34,692	483	3,658	10.0
'75	9,415	85,542	32,312	9.1	162,926	160,338	162,435	35,281	531	4,604	12.6
'76	10,174	89,688	39,560	8.8	199,556	197,334	198,892	35,860	698	5,546	15.2
'77	13,933	109,243	50,759	7.8	263,559	260,574	254,245	36,436	853	6,978	19.1
'78	16,387	135,803	59,899	8.3	324,328	320,867	325,867	37,019	1,279	8,802	24.1
'79	17,170	163,299	70,557	9.5	384,714	380,730	374,410	37,355	1,624	10,023	27.5
'80	22,122	206,851	84,114	9.4	457,580	452,327	411,809	37,449	1,503	10,997	30.1
'81	18,229	194,205	93,950	10.7	517,657	512,875	557,722	38,723	1,636	14,403	39.5
'82	22,536	228,248	103,282	10.1	580,124	576,236	592,720	39,331	1,800	15,070	41.3
'83	29,537	274,783	125,435	9.3	716,384	712,206	728,575	39,951	1,875	18,237	50.0
'84	37,646	334,352		8.9		840,543	833,504	40,578	1,998	20,540	56.3

자료 : 낙농관계자료, 농수산부, 한국유가공협회 '84 축협조사제보, 축협중앙회 '85, 2

그런데 이번의 낙농시련은 한우의 두수증가, 소값의 하락등으로 어려운 난국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큰 고개를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자동차의 후진으로 생각하고 당황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다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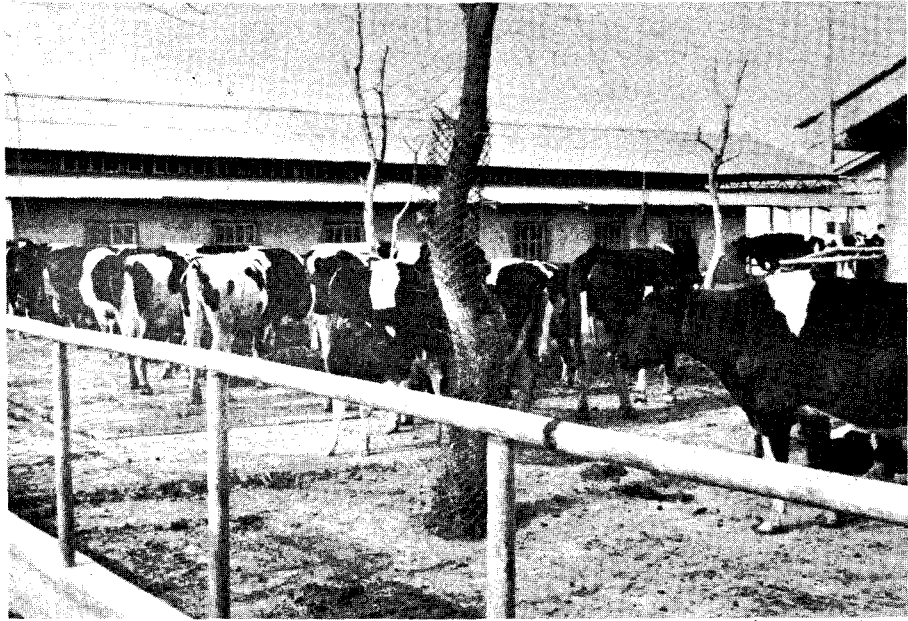
4천만 국민이 되던날 모두들 TV에서나 신문에서 산악제한의 열기가 가득할 때 필자는 우리 4천만 국민이 매일 한병씩 마실 우유를 생산하자면 몇 마리의 젖소가 필요할 것인가를 계산해 본적이 있다. 두당 5,000kg의 유량 수준으로 착유우가 50만두, 전체두수가 1백만두 이상이 필요함을 알았다.

'8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일 56.3gr 밖에

는 마시지 못했다. 앞으로 3배이상의 두수가 증가해야 겨우 매일 1홉의 우유를 마시게 될것이다. 필자가 계산한 (표 7)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약 4천7백만이 예상되는 '96년도에는 1인당 GNP가 약 4천달러 시대로서 1인당 연간 소비량 89kg, 매일 1.3홉에 해당하는 2백43g을 소비하여 온 국민이 매일 1홉이상을 마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시대에 가면 필요한 젖소두수는 120만두로서 현재의 3배이상인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15년뒤인 대망의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만, 1인당 국민소득 5천불시대가 올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때에는 연간 1인당 134kg 매일 367g로서 꼭 두홉의 우유를 마시는 새



로운 낙농시대가 닥아올 것으로 믿고 있다.

그때에 필요한 젖소두수는 무려 2백만두로서 두 당 연간 유량은 6,000kg 수준이 될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이러한 밝고 희망에 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픔을 견디는 인내로서 다 같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마음 자세를 갖기 바란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일은 전술한 바와 같이 '84년도에 우유 1홉을 가지고 3.2 사람이 둘러 앉아 마실정도로 극소량의 우유가 소비되고 있으면서 '85년도에 우유의 체화량이 분유로 환산하여 약 1만 M/T에 이르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식수준을 짐작할만 하다.

우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의 보고로서 "완전한 식품"이고, 노인들의 장수를 보장하는 "효도 식품", 어린이의 성장발육을 보장하는 "성장식품", 장년들의 스태미나를 넘치게 하는 "스태미나 식품"일 뿐만 아니라 위암을 예방할 정도로 위를 튼튼하게 하는 알카리 자연식품으로서 술을 마시는 애주가는 술마시기 전에 우유를 마심으로써 술로부터 위를 보호하고 위를 상하게 하는 각종 약을 먹을때 우유로 마시면 위를 보호해 준다는 정도의 상식을 갖고 살아야 건강을 보장 받

을 것이다.

필자가 '65년도에 일본대학의 초청으로 일본 낙농경영의 연구를 위해 독일했을 당시에 일본의 낙농 개척자였던 구로자와 도리조(黒澤西藏) 목장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는데 1년반동안 60마리의 젖소를 거의 혼자 관리하면서 10병(2kg) 정도의 우유를 매일 마신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일본 주인은 나를 보고 일본사람 보다 두배의 우유를 마시고 세배의 일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매일 6병의 우유를 주식으로 하던 구로자와 주인은 97세로 얼마전에 서거하였고 필자가 나고야 대학원에서 축산경영학을 전공할때 숙식했던 아이찌목장(愛知牧場)의 주인도 하루에 6홉의 우유를 주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96세 정도로 견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우리집의 3총사에게 어릴때 부터 매일 3~4병의 우유를 먹인 결과 큰놈의 경우 국민학교 6학년때(잠실국교) 175cm로 우유가 성장식품임을 증명한바 있다.

필자는 15년동안 제자들의 결혼식때 주례사에서 신부에게 부탁해온 것은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하루 세번 진지상에 따끈따끈한 우유를 드리는 일이다"라고 강조해 왔으며 그때마다 하객들은 웃음바다가 되곤 한다.

그 곳에 왔던 하객들이 그날부터 우유를 마시게 된다고 믿고 있다.

스태미나 식품하면 뱀, 곰뱀이, 개구리등을 잡아 먹고 있으나 우유를 마시면 해결될 스태미나식품을 멀리서 어렵고 값비싸게 구하는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전국무위원을 비롯한 전공무원, 국회의원, 전교직자들은 솔선하여 국민건강을 보장해 줄 우유마시기 운동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에 부끄럽게도 우유의 체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 하루에 2~3병의 우유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백해무익한 담배 한 갑을 줄이면 자녀들에게 우유를 줄 수 있고 부모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으로 믿는다.

만약에 담배는 피우면서 자녀들에게 매일 우유를 주지않는 부모가 있다면 가장(家長)의 자격이 없

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강대국이 되고 “선진복지의 나라”가 되기위한 기초 조건으로서 “국민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실현을 위해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것은 필자의 인생목표(人生目標)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우유마시기 운동가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필자이기에 최근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어 다방에서의 우유소비현황을 조사중에 있는데 대개 다방에서 매일 1~2ℓ 정도의 우유밖에 소비되지 않고 있다.

그 물량은 전체 다방의 판매 잔수의 10%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다방에서의 우유소비촉진도 연구중에 있는데 좋은 묘안이 나올 것 같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우유의 체화문제는 낙농가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의 장래를 튼튼하게 다져갈 귀한 우유의 존귀

〈표 7〉 연도별 육류·우유 및 달걀수요량과 적정사육두수 추정

구 분		연 도	1984	1991	1996	2000
인 구 (천명)			40,578	44,690	47,417	49,355
1 인 당 GNP (\$)			1,998	3,060	4,095	5,035
최 고 기 (한, 육우)	1인당수요량 (kg)		2.6	2.6	5.34	6.57
	전체수요량 (천톤)		107	178.8	253.2	324.2
	적정사육두수 (천두)		2,317	2,678	3,543	4,286
배 지 고 기 (돼 지)	1인당수요량 (kg)		8.4	11.80	14.88	17.58
	전체수요량 (천톤)		340	527.3	705.6	867.7
	적정사육두수 (천두)		2,958	4,724	6,321	7,773
우 유 (젖 소)	1인당수요량 (kg)		20.5	48.8	89.0	134.0
	전체수요량 (천톤)		833.5	2,181.3	4,220.6	6,613.5
	적정사육두수 (천두)		334	764.1	1,208.6	2,056.2
달걀 고 기 (육 계)	1인당수요량 (kg)		2.9	3.99	4.97	5.81
	전체수요량 (천톤)		118	178.3	235.7	286.8
	적정사육두수 (천수)		15,472	23,943	30,058	35,236
달걀 (산란계)	1인당수요량 (kg)		6.7	8.57	10.14	11.42
	전체수요량 (천톤)		272	382.99	480.81	563.63
	적정사육두수 (천수)		31,031	44,465	55,822	65,438

주 : ① 1인당 GNP 및 인구는 K. D.I. 추정치임.

② 85년도 최고기수요량중 한(육)우는 82.7%, 젖소는 17.3%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함 (단 매년 구성비가 달라짐).

③ 육계 적정사육두수는 육계+종계임.

④ 산란계 적정사육두수는 산란계+종계임.

함을 온 국민은 인식할 때라고 생각한다.

## 4. 축산시련을 이기는 길

소값이 폭락하고 분유가 쌓이는 소의 수난시대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전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몇가지 축산학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즉각 받아주면 고맙겠다.

**첫째** 소값을 안정시키는 길은 정부가 「특별 소자금」을 방출하여 생산비 수준가격으로 소를 구입하고 도살후 통조림을 만드는 방법이다.

축협중앙회에서 생산하고 있는 “돼지고기 통조림”은 실온에서 36개월이나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類型)의 통조림을 만들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비확대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금인 바 현재의 농수산부의 예산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수뇌부의 영단에 의한 특별자금으로 이 어마어마한 농민의 손실과 축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둘째** 조속한 시일 내에 쇠고기의 수출실현이다. 국내 소비확대와 수출이익의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의 보전(補填)에 의해 실현시켜야 한다.

**세째** 쇠고기의 가격연동제의 정착화이다. 소의 산지가격이나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의 등락에 따른 정육점의 소매가격은 정부의 고시가격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4만 8천 개 한식음식점에도 연동제의 실시가 바람직하다.

차제의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정육점에 강력한 단속과 교육이 요구된다.

농촌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 한국의 뿌리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왜 시원한 결단을 못내리고 있는가?

**네째** 전국민이 매일 우유 한병 마시기운동을 정부에서부터 솔선하여 벌이는 일이다.

신문은 누구를 위한 매체인가? 이런 때의 국민

들의 계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자.

반사회는 누구를 위한 반사회인가?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멋진 반사회를 열어보자!

**다섯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우유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함이 필요하다.

일본은 87. 5. 1일 현재 매일 1천6백만盒의 학교우유급식으로 어린이의 체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80년 우리나라 국민학교 6학년 남학생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 학생이 4.1cm나 신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일본사람보다 작아지고 있는 이 서글픈 사실에 국민들은 모르는 체 하겠는가?

**우유를 마시자!**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유를 마셔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국무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회의에서 우유를 마시는 시범을 보이자!

세계 문화인의 척도는 우유를 얼마나 마시고 있는가에 있다.

세계의 지도자는 우유의 존귀함을 깊이 인식하였고 국민들에게 우유보급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일곱째** 특별소비세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이 법은 1976년 12월22일 법률 제2935호로 제정 공포되었는 바 “우유 또는 유제품을 원료로 하는 산성음료와 이에 유사한 것(특별소비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되었고 빙과류로서 “아이스크림” “아이스샤벨”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지방분”을 포함한 액상식품이 동결된 것이 과세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다.

'78년부터 필자는 계속 이 악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올바른 정신을 가진자가 없어서인지 아직도 살아있다. 12대 국회의원님들께도 강력히 지적한 바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법의 명(命)이 긴가를 알 수 없다.

다음 회기에서는 반드시 이 악법을 폐기하는 현명한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여덟째** 축산물가격 안정법의 제정이다.

국회의원의 중요임무는 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국회의원님께 또는 지면으로 수차 주장한 바 있다. 이 법의 제정을 다음 회기에 기대해 보고자 한다.

- 끝 -